

주 연결 고속도로 50마일마다 전기차 충전소 설치 추진



▲ 주차장에 있는 전기 자동차 충전소.
사진=shutterstock

미국이 전기차 이용 확산을 위해 각 주를 연결하는 고속도로(프리웨이)에 50마일마다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추진한다. 또 자동차 브랜드와 상관없이 충전소 이용과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교통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규칙 변경을 예고했다.

이 규칙 변경안은 주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에는 50마일마다 충전소가 설치하고 각 충전소는 고속도로에서 1마일 이내에 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각 충전소는 최소 4개 이상의 충전기를 설치해야 하며 자동차 모델과 무관하게 일정 속도 이상으로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교통부는 규칙안에서 충전 비용 결제를 위해 회사별로 회원 가입을 강제하는 것도 금지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인프라 법안상의 '국가 전기차 인프라(NEVI) 포뮬러 프로그램'에 따른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각 주의 전기차 충전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향후 5년간 50억 달러의 예산을 집행하는 내용이다. 교통부는 이번 규칙 변경안에 포함된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에만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탄소중립 목표 실현 등의 차원에서 2030년까지 모두 50만 개의 전기차 충전소를 구축하는 것을 비롯한 전기차 확대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푸드뱅크 이용자 크게 증가 … 인플레 여파

미국에서 푸드뱅크 이용자가 크게 증가했다. 반면 푸드뱅크는 운영비와 식품 조달 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9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콜로라도주와 와이오밍주를 담당하는 로키 푸드뱅크의 아디타 데사이 대변인은 이를 전 "팬데믹 이전보다 현재 34% 가량 더 많은 무료급식 수요가 있다."며 "월 지출 비용도 130만 달러로 3배 늘었다."고 말했다.

푸드뱅크 200곳 이상을 지원하는 미국 최대 기아구호 단체 피딩 아메리카의 케이티 피츠제럴드 대표도 "미 전역의 푸드뱅크에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생활 필수 비용 증가가 저소득 가정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푸드뱅크 자체도 인플레이션 충격을 받고 있다. 무료급식을 찾는 밭길이 늘고 있지만 연료비 상승 등으로 물건 채우는 게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버지니아주 남동부 지역 푸드뱅크 대표인 크리스토퍼 탄은 "식량 기부가 줄었고, 배송 비용과 식료품 비용이 늘어 팬데믹 이전보다 예산이 5배 더 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일부 푸드뱅크는 제공하는 음식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 캘리포니아 라 푸엔테에서 LA 지역 푸드뱅크의 자원봉사자들이 음식을 차량 트렁크에 실고 있다. 사진=shutterstock

저소득층의 식량위기는 더 악화될 우려가 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NORC)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3%가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휘발유(63%) 식료품(54%) 일반상품(48%) 의료(47%) 주거(42%) 등 대부분 분야에서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심각한 재정 충격을 받았다고 답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위해 입국절차 간소화 추진

미국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입국 절차 간소화 추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코로나19 이후 각종 여행 제한으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산업을 활성화 할 '국가 여행·관광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나 러본도 미 상무장관은 "입국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면서 "종이 서류 기반의 번거로운 절차에서 디지털화된 프로세스로 전환하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엔데믹 속에서 세계 각국이 외국인 입국 금지를 포함한 국경 제한을 해제하는 추세에 발맞춘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에 입국하려면 코로나 예방 접종이 필요하고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돼야 한다.

러본도 장관은 코로나 음성 테스트가 관광 산업에 대한 "장벽"이라며 인정했지만, 이런 규정이 언제 완화될지는 예측하지 않았다. 그는 그러면서 "(관광)업계에서 관련 얘기를 많이 들었고 행정부에 그걸 표현했다."고 덧붙였다.

미 정부는 관광 활성화 전략을 통해 20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9천만 명, 이들의 연간 지출액을 2천790억 달러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상무부에 따르면 2019년 외국인 관광객 수는 7천 940만 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2020년 1천920만 명으로 급감했고 2021년 2천210만 명으로 소폭 회복했다.

코로나19 이전 관광업은 미국에 950만 개의 일자리와 1조9천억 달러의 국내총생산(GDP)을 창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증 전문
치료 병원

오렌지[백] 한방·척추병원

Baek Chiropractic-Acupuncture, Inc

"28년의 임상경험과 한방/척추의 정확한 진단"으로,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해 드립니다.
침, 부황, 한약/보약, 척추교정, 엑스레이, 각종물리치료를 모두 한곳에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서울/세종/대한)
센트럴 헬스, 웰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없음
Scan, Care 1st
Clever Care, Kaiser
Humana, Blue cross
Blue Shield, AARP
일반 메디케어 파트 B

각종 보험

오바마 케어
Health Net, Blue cross
Blue Shield, Kaiser
Aetna, Cigna
United Health Care
HMO- 주치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도
치료 가능합니다
*예외가 있으니 전화 확인 요망

교통사고

사고 보험 처리
도와드립니다.
무료 상담!
전화주세요!

치료 내용

두통, 어깨, 목, 허리, 무릎, 발목,
저림, 오십견, 안면마비, 우울증,
수면장애, 감기, 갱년기 증상 등

진료
시간 월~금 9am~6pm / 토 9am~12pm
점심시간 12pm~1pm / 목 closed

예약/상담 714.530.7001

9681 Garden Grove Bl., Suite 101
Garden Grove, CA 92844(모란각 식당 옆)



Dr. 백사온
한의사, 척추신경의사
SCU 척추 의대 졸업
South Baylo 한의대 졸업

* 그 외 보험도 전화로 확인해 드립니다. (보험 없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 플랜도 있습니다.)